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4, No.4 (July 2004) pp.97~111

조선시대 아동용 한자 학습서를 통해 본 복식명칭 연구

김 은 정*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교수**

A Study on Clothing Names in Sino-Korean Study Books in Choseon Period

Eun-Jung Kim* · Soon-Che Ka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4. 2. 5 투고)

ABSTRACT

To study the clothing names has been one of the research subjects in the history of clothing since the name could be the basic tool to understand the clothing.

In the past, the name of clothing were used in Chinese character which is hieroglyphic. Each character of Chinese has special meaning. They had been changed into Korean after Korean characters were invented. During the period when they were changed into Korean, some of them retained the original meaning while others widened the original meaning. Some of them even translated into totally different meaning. Accordingly, it could be a clue to survey the changing process of Chinese names into Korean by analysing the vocabulary in the books published in Choseon dynasty.

In this study, the first step is to survey the children's Chinese vocabulary learning material, Hunmongahoe(1527), Sinzeungliuhap(1576) and Ahackpyun(1804). These books were widely used from 16 to 19 centuries. It has been surveyed how the meaning of clothes names has changed and the special features of changed names.

The names appeared in these Chinese vocabulary learning books included headgear, footwear, dress, part names of dress, ornaments, color and names of textile. The followings are observed by studying the names appeared in more than two books above:

1. The same Chinese character were translated differently.
2. Recently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has been reduced or changed into new Chinese character.
3. Some of them retained the same meaning but used different character.

Corresponding author: Eun-Jung Kim, E-mail: kejsally@yahoo.com

It has been observed that some clothing names retained the original meaning but others changed the meaning, or translated into different names. It shows that the appropriate meaning of names should be properly selected when we study the history of clothing.

Key words : clothing names(의복명칭), Hunmongahoe(훈몽자회), Sinzeungliuhap(신증유합), Ahackpyun(아학편)

Ⅰ. 서 론

복식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복식명칭은 복식의 형태, 유래, 용도 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복식명칭은 표의문자인 한자로 기록되어 왔으나,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자로 된 복식명칭들이 지속적으로 언해되면서 한자가 포괄하던 의미가 구체화되고 한글로 된 복식명칭도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한자로 된 복식명칭들이 한글로 언해되는 과정을 주목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자에 대한 언해의 내용이 시대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거나 포괄하는 의미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 혹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의 변화 및 그 변화상을 살피는 것은 그 시대의 복식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당시의 복식문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복식명칭에 관한 복식사 분야에서의 연구는,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대한 문헌적 연구[1], 언문 간찰을 중심으로 17세기 의생활에 대한 소고[2]와 조선 중기 의생활 어휘에 관한 고찰[3]이 있었으며, 노걸대 간행본을 통해 14~18세기의 복식 관련 용어비교 연구[4] 등이 있다. 또 국어학 분야에서는 훈몽자회의 어휘를 국어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 중 복식 어휘를 고찰한 것[5]과 ≪순천김씨묘간찰≫의 어휘 분포 연구에서 복식 용어를 분류하고 그 복식을 해석한 연구[6], ≪천자문≫·≪훈몽자회≫·≪신증유합≫ 자석 연구[7]에서 일부 복식명칭이 연구되어 왔다. 이처럼 복식용어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복식사·국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식명칭이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나, 분화되는 등 명칭의 통시적인 분석에 관한 고찰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한자에 대한 명확한 한글 해석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 어휘집을 중심으로, 한자로 표기되었던 복식 용어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리 변화되어 언해되고 있는지를 고찰 분석하여, 시대에 따른 용어 해석의 차이 및 의미의 확대·축소 등 해석 범위의 차이, 어휘형태의 변화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어휘집에는 아동의 한자학습서로 사용된 ≪千字文≫, ≪類合≫, ≪訓蒙字會≫, ≪新增類合≫, ≪兒學編≫과 외국어 학습서로 사용된 類解류인 ≪譯語類解≫, ≪譯語類解補編≫, ≪蒙語類解≫, ≪蒙語類解補編≫, ≪倭語類解≫, ≪同文類解≫, ≪方言類釋≫, 이외 ≪漢淸文鑑≫, ≪國漢會語≫, ≪物名攷≫, ≪雅言覺非≫, ≪古今釋林≫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명을 고찰하는 첫 단계로 조선시대 아동의 한자 학습서로써, 각각 편찬시기가 다른 ≪訓蒙字會≫, ≪新增類合≫, ≪兒學編≫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현재 한자 의미에 대한 해석은 ≪大漢韓辭典≫[8]을 참고하고자 한다.

Ⅱ. 한자학습서의 개관

1. 訓蒙字會

≪訓蒙字會≫[9]는 중종 22년(1527)에 최세진에 의하여 편찬된 童蒙들에게 한자를 학습하게 하는 초학서로서 상·중·하 세 권 1책으로 되어있다. 이 책은 그 범례에 훈민정음 字母의 이름과 차례를 나타내어 있는 까닭에 근대로 오면서 오히려 국문연구에 자료가 되고 있는데, 한자의 해석과 음을 보여주고 있으

므로 한자의 譯의 연구는 어휘의 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향가의 해독을 비롯해서 고대의 官名·地名·인명 등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10] 또한 한자의 수에 있어서 ≪千字文≫과 ≪類合≫을 압도하고 그 내용도 새로워 실용적 가치가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1]

이 책에는 상·중·하 3권에 나누어 한자 3,360자를 4자 유취(類聚)로 33항목으로 나누어 한글로 음과 뜻을 달았다. 상권에는 천문·지리·화품(花品)·초훼(草卉)·수목·과실·화곡(禾穀)·소채(蔬菜)·금조(禽鳥)·수축(獸畜)·인개(鱗介)·곤충·신체·천륜(天倫)·유학(儒學)·서식(書式) 등으로, 중권에는 인류·궁택(宮宅)·관아(官衙)·기명(器皿)·식찬(食饌)·복식(服飾)·주선(舟船)·거여(車輿)·안구(鞍具)·군장(軍裝)·채색·포백(布帛)·금보(金寶)·음악·질병·상장(喪葬) 등으로, 하권에는 잡어(雜語) 등 모두 33개 물목(物目)으로 나누어 배열하였다.

복식에 관련된 부분은 중권의 服飾·軍裝·彩色·布帛이며, 한자의 해석으로 복식명칭을 나열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훈몽자회≫에 기록된 복식명칭

분류	한글명칭
服飾	곳갈, 복도, 수건, 갇, 감토, 사모, 횟, 신, 보션, 운혜, 격지, 관딕옷, 갓옷, 젹삼, 치마, 고의, 옷, 가사, 겁옷, 홀, 누더기, 솜, 호읫옷, 주름, 소매, 깃바대, ᄀᆞ뭇, 고의믿, 옷깃, 깃, 바탕, 기슭, 수, 세툣, 빈혀, 동곳, 귀엿골회, 골화, 씬, 달외, 상류, 수건, 니블, 띠, 홀, 노리개, 수달마기, 암달마기, 눕더기, 보로기, 깃, 벗오리, 놀근소옴, 소옴, 풀쇠, 고티, 핟옷, 기름, 곱, 연지
軍裝	투구, 갑
彩色	흰, 힐, 푸를, 쳥대, 거믈, 가말, 블글, 누를, ᄌᆞ딜, ᄑᆞ롤
布帛	삿, 놋, 고로, 비단, 깁, 모시, 뵈, 무ᄌᆞ, 시욱, 담, 금, ᄀᆞᄂᆞᆫ깁, ᄀᆞᄂᆞᆫ뵈, 명디, 무뤼

2. 新增類合

≪신증유합≫[12][13]은 조선 초기부터 ≪千字文≫·≪訓蒙字會≫ 등과 함께 초학서(初學書)로 사용되던 저자 미상의 ≪類合≫을 선조 때의 학자 유희춘(柳希春)이 30여 년간 증보하여 1576년(선조 9)에 완성·간행한 한자 학습 입문서이다. 목활자본이고,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14]

책의 내용은 천문·지리를 비롯하여 수목·인륜(人倫)·의복 등 모든 사물을 27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한자 3,000자를 배치하여 글자마다 사성(四聲)을 명시하였으며, 글자 밑에는 한글로 음(音)과 훈(訓)을 두 가지씩 달았다.

≪신≫에서 복식에 관련 된 부분은 衆色, 鋪陳, 金帛, 資用, 器械, 衣服 이다. 이를 한자의 의미로 기록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신증유합≫에 기록된 복식명칭

분류	한글명칭
衆色	프를, ᄑᆞ롤, 누를, 블글, 힌, 가물, 거믈, ᄌᆞ딘, 쇡
鋪陳	격지
金帛	슈, 고로, 로[벌], 면듀, 깁, 사, 빗, 거우로, 벼개
資用	모시, 삼, 뵈, 소옴, 가족, 니근갓, 실, 시욱
器械	갑, 듀구
衣服	곳갈, 슈건, 사모, 감토, 갇, 젹, 휘, 신, 아히신, 보션, 곤의, 옷, 의장, 관딕옷, 갓옷, 홋옷, 치마, 바지, 핫옷, 댜론핫옷, 듕의, 뵈너븨, 힝뎐, 니블, 빈혀, 곳갈긴, 귀마개, 폐슬, 힝뎐, 골홈, 큰띄, 띄, 인, 홀, 인긴, 패옥, 가ᄅᆞ마, 혁, 쟈ᄅᆞ, ᄂᆞ모, 칼카풀, 채, 풀쇠, 쑤밀, 빗, 빗날

3. 兒學編

≪아학편≫[15]은 다산 정약용의 玄孫 丁奎英이 편찬한 ≪俟菴先生年譜≫에는 "純祖 四年(1804) 公四十三歲 春 兒學編訓義成를(凡二千文)"이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兒學編訓義가 1804년 봄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아≫는 현재 이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후대에 다시 필사된 것으로 현전하는 필사본 중 가장 시기가 앞서는 강경훈본(1813)[17]과 가장후대로 보이는 지석영본(1908)[18]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여 아학편 이본들간의 차이 또한 함께 고찰 하고자 한다.

≪아≫는 아동에게 '어떠한 성질'의 단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 가르칠 것인가를 궁리한 후 편찬한 한자학습서로 2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1,000자 씩 모두 2,000자가 기록되어 있다.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天·地·人부 三才의 배

열 순서에 있어서 다른 교재와는 달리 사람 '人'항을 가장 먼저 배열하여 그의 인본주의 사상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둘째, 문자배열을 음양대립적인 형식을 취해 배열함으로써 양편의 뜻이 서로 통하게 되는 이치를 간파시키고 아동의 인지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즉, 천지(天地)·부모(父母)·군신(君臣)·부부(夫婦)·남녀(男女)와 같이 두 개의 문자를 조(組)로 하여 맹목적인 구송(口誦)을 넘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한자의 구성원리에 입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지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나무목변(木), 초두밑(艸), 벼화변(禾) 따위를 각각 편방으로 하여 학습의 유추와 발전을 기하려고 하였다. 이 책은 편찬의 체계와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특히 편찬의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당시의 실학적 교육사상과 방법론의 탁월한 이상을 구조화시킨 것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19]

복식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한자학습서와는 달리 소 항목의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자의 의미로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아학편≫에 기록된 복식명칭 * [ ]은 지석영본

상, 18b	치직[채쩍], 뵈, 비단, 깁, 저ᄉᆞ[저사], 옷, 풀소옴[솜], 동다위[술띠]
상, 19a	관, 띄, 져고리, 바지, 갓옷, 젹삼[적삼], 도포, 두루마기, 치마, 겹옷, ᄉᆞ매[소매], 옷깃, 옷깃[옷섭], 목화, 신, 나무신, 포다기[포대기], 보[포대기], 힝젼[행전], 보션[버선], 갑옷, 투구, 도롱이[뉘역]
상, 19b	삿갓[갓], 상복[상옷], 노띄[삼띠], 사모, 홀, 큰띠[큰띠], 폐슬, 신ᄭᅳᆫ, 관ᄭᅳᆫ, 혼솔[옷솔], 옷단[옷선], 옷기슭[뒤ㅅ자락], 옷폭[폭], 슈건[수건], 슈건[찰수건], 귀여골[귀고리], 찰픽[패옥], 이불, 홋니불[홑이불], 벼기[벼개], 오[요], 빈혀[가랑빈혀], 거울, 족집게
상, 20a	상토, 낭ᄌᆞ[첩지], 빗, 참빗[어레빗], 청대, 연지, 분
하, 3a	푸를, 프를, 프롤, 누를, 불글[붉을], 검을, 흴, 흰, 아쳥[보라], ᄌᆞ디
하, 3b	빗

Ⅲ. 복식명칭의 비교 분석

이상의 세가지 한자학습서에 기록된 복식명칭을 쓰개, 신, 의복, 의복 부위명칭, 머리모양·장신구·생활용품, 의복재료 및 직물, 색명으로 분류하여, 이중 동일한 한자명칭을 중심으로 그 의미의 변화 내용 및 변화 요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쓰개류 명칭의 비교고찰

쓰개류는 <표 4>로 제시하였으며, 이중 '冠', '巾', '帽' 가 세 개의 학습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다.

'冠'은 ≪훈≫과 ≪신≫에서는 '곳갈'이란 의미로 사용되다가 ≪아≫에 오면 '관'의 의미로 변화하게 되는데, ≪석봉천자문(1583)≫[20]에서는 '곳갈'로, 이후에 제작된 ≪병자본천자문(1696)≫[21]에서는 '관디', ≪주해천자문(1804년)≫[22]에서는 '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大漢韓辭典(2004)≫에서는 '갓(弁冕)'[23]으로 해석되어 '곳갈→관디→관→갓'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대에 따라 한자의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이해된다.

'巾'은 '곳갈'과 '수건'으로도 언해되다가 ≪신≫이후에는 '수건'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용도의 초학서로 사용된 천자문 중 시대가 유사한 ≪석봉천자문≫과 ≪병자본천자문≫ 및 ≪주해천자문≫에서도 '巾'이 '수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주해천자문≫에서는 그 풀이를 '두건, 몽수의'라 하고 있는데, '巾'은 현재 '수건'과 '두건'의 의미(표 4참조)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帽'는 ≪훈≫에는 '갇, 감토, 사모'를 모두 지칭하고, ≪신≫에서는 '감토와 사모'를 ≪아≫에서는 '사모'만을 지칭하여 점차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훈≫에서 '帽'가 '갓'의 의미를 포괄하다가 ≪신≫에서는 '笠'이 갓의 의미를 대신하면서 '帽'의 의미가 축소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 ≪훈≫에 기록된 '幞', '弁'은 '복두'로 기록되고, 이후의 책에는 기록되지 않는데(석봉 및 병자본 천자문에서는 弁은 '곳갈', 이후는 '관'으로 변화), 이렇게 한자 자체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실제 조선시대 복두의 사용례가 줄었기 때문에 ≪훈≫이후 다른

한자학습서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곳갈(冠, 冕, 巾, 幘), 관(冠), 복두(幞, 弁), 감토(帽), 사모(帽), 수건(巾), 갓(帽, 笠), 삿갓(笠)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중 '곳갈[24]'은 다양한 한자로 표기되어 일찍부터 쓰개를 뜻하는 우리말의 일반명사였으나, 오늘날은 '중이나 무당 또는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위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자[25]'로 해석하고 있어 포괄하는 의미가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갓'은 ≪훈≫이후에는 '笠'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帽'가 '사모'를 대표하는 한자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토'는 ≪蒙喩編(1810)≫[26]에 '氈帽감토小帽'라 하여 '氈帽'와 '小帽'의 관련성을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 '小帽'는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말로는 '감토'라 번역하였으며,[27][28] ≪國漢會語≫[29]에서는 '宕巾 cap'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특정한 모양의 쓰개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유사한 쓰개류를 통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신발류 명칭의 비교고찰

신발류는 <표 5>와 같으며, 이중 '靴', '鞋', '革蔑(襪)', '屐'이 세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靴'는 ≪훈≫과 ≪신≫에 목이 긴 신발을 의미하는 옛 표현인 '휫', '훠'로, ≪아≫에서는 '목화'로 기록되어 있어 의미는 같으나 어휘형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鞋'는 '신'을 의미하며, '鞵'와도 같이 사용되었으며, '버선'을 의미하는 '革蔑'은 '襪'로도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屐'은 나무신을 의미하는 고어의 '격지'[30]에서 '나무신'으로 표기가 변화되었다.

한글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화·목화(靴, 鞾), 신(鞋, 鞵, 履, 舄, 屨), 버선(革蔑, 襪), 나무신·격지(屐), 아힉신(靸)으로 분류된다. 이중 '신'은 여러 가지 한자 표기가 있었는데, ≪훈≫에서 보면 '履, 舄'은 예복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용도에 따라 한자표

<표 4> 쓰개류의 명칭 비교

	훈몽자회	신증유합	아학편 -강경훈본(1813)	아학편 -지석영본(1908)	大漢韓辭典 (2004)
冠	곳갈관	곳갈관	관 관	관 관	갓관
冕	곳갈면	곳갈면	×	×	면류관면
幞	복도복	×	×	×	두건복
弁	복도변	×	×	×	고깔변
巾	곳갈건 又 슈겊건	슈건건	슈건건	수건건	수건건, 두건건
帽	갇모 又 감토 又사모	감토모/사모모	사모모	사모모	모자모
幘	곳갈젹	젹젹	×	×	망건책
笠	×	갇닙	삿갓닙	갓 립	삿갓립
冑	투구듀	×	투구쥬	투구주	투구주

<표 5> 신발류의 명칭 비교

	훈몽자회	신증유합	아학편 -강경훈본(1813)	아학편 -지석영본(1908)	大漢韓辭典 (2004)
靴	휫 화	鞾 靴훠화	鞾목화화	목화화	신화
鞋	신혜	鞵신혀 鞋	신혀	鞵신혜	신혜
履	신리 禮服用 俗呼禮鞋	×	×	×	신리(鞋也)
舄	신셕 禮服用	×	×	×	신석
革蔑	보션말又俗呼훠쳥氈-	보션말襪	襪버선말	革蔑버선말	버선말
革翁	운혜옹 又휫욷亦曰-俗呼靴靿	×	×	×	신옹
屐	격지극 木-	격지극	나무신극	나무신극	신극
靸	×	아힉신삽	×	×	신삽
屨	×	×	신구	신구	신구

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다양한 '靴, 鞋, 鞾, 履, 舃, 屨'의 한자가 모두 '신'으로 해석되고 있어, '신'의 의미가 신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 의복류 명칭의 비교고찰

의복류에는 <표 6>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중 '袍', '裘', '衫', '裳', '裙', '袴', '襖'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袍'는 '관대옷[31]'에서 '도포'라는 특정한 의복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후대에 '袍(외의)'를 대표하는 것이 '도포'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에는 '핫옷포, 군복포, 내의포, 두루마기포, 잠방이포[32]'라 하여 외의류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裘'는 음과 훈의 변화 없이 사용되었고, '衫'은 ≪훈≫과 ≪아≫에서는 '적삼'으로 ≪신≫에서는 '홑옷'으로 기록되어 있어 표기의 차이는 있으나, '홑옷'이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삼(赤衫)은 ≪의인왕후 빈전혼전도감(1600)≫·≪인목왕후 빈전혼전도감(1632)≫[33]에 '홑옷'의 하나인 '한삼'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순천김씨묘 언문간찰[34]에는 '겹적삼'의 기록도 있어, '홑옷'의 의미와 함께 특정한 형태 및 바느질법이 있는 의복으로 생각된다. 또 ≪신≫의 저자인 유희춘의 ≪미암일기≫에는 '尺衫[35]'이라는 명칭과 땀받이 적삼으로 해석되는 '汗沾衫[36]' 등이 기록되어 있어 '衫'에 다양한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衫'은 '적삼, 옷, 한삼'으로 풀이되고 있다.

'裳'과 '裙'은 '치마'로 해석되는데, ≪훈≫의 해설을 보면 '裳'은 남복에, '裙'은 여복에 사용하는 한자임을 알 수 있다. 또 '裳'은 여자의 예복을 지칭 할 때도 사용되고 있어[37], 주로 의례적인 용도의 치마를 의미했던 한자임을 알 수 있다.

'袴'는 시대순으로 보면 '고의[38]→바디→바지'로 변화되고 있지만 그 의미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현재 바지의 명칭이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褌'은 ≪훈≫에서는 '고의'로 해석하며, 유사어로 '犢鼻褌', '잠방이', '窮袴' 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의미인 '褌'은 ≪신≫에서 '듕의'로 해석되고 있어, '褌'과 '褌'이 '袴'와는 다른 下衣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듕의'는 '중의'의 앞선 표기로 ≪國漢會語≫[39]에 우리말 '중의'를 한자어로 '中衣 單袴'로 표기하고 있어 홑바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襖'는 ≪훈≫에서는 남녀 옷의 총칭으로, ≪신≫에서는 '핫옷'이라 기록되어 '솜을 두거나 겹옷을 의미'하며, ≪아≫에서는 특정의복명인 '두루마기'로 기록되어 있어 한자의 의미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襖'가 '옷'을 통칭하며 시대에 따라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된 명칭인 것으로 생각된다.

'襦'는 '댜ᄅᆞᆫ[40](짧은)핟옷'에서 '저고리'로 표기가 변화되었는데, 이는 유사어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나, 저고리는 '쟈근져고리[41]', '긴져고리[42]' 등을 포함하는 상의류를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 '저고리'는 ≪신≫과 유사시기에 제작된 ≪미암일기≫[43]에는 한자표기인 '赤古里'가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신≫에서는 '댜ᄅᆞᆫ핟옷'으로 언해한 것을 보면, 한글 '저고리'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복식명칭을 한글명칭으로 분류하면 두 개 이상의 한자로 기록된 옷(衣, 服, 襖), 고의(褌, 袴), 가사(袈, 裟), 치마(裳, 裙)와 한글 명칭은 다르되 한자가 동일한 관대옷·도포(袍), 격삼·홋옷(衫), 짧은 핫옷·저고리(襦), 이외 바지(袴), 핫옷(襖), 갓옷(裘)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4. 의복 부위명칭의 비교고찰

의복의 부위명칭은 <표 7>과 같으며, '袖', '襜', '幅'이 두 권 이상의 책에 기록되었다.

'袖'는 '소매'를 의미하며, ≪훈≫에는 '袂, 袂, 褎'이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襜'은 ≪훈≫에서는 '고의밑'으로 ≪신≫에서는 '듕의'로 그 표기가 다른데, 표기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44]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훈≫에서는 고의의 '밑(밑)'을 가리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표 6> 의복류의 명칭 비교

	훈몽자회	방언유해	아학편 -강경훈본(1813)	아학편 -지석영본(1908)	大漢韓辭典 (2004)
袍	관ᄃᆡ옷포 朝服	관ᄃᆡ옷포	도포포	도포포	핫옷포, 군복포, 내의포, 두루마기포, 잠방이포
衣	×	옷의	옷의	옷의	옷의
服	×	의장복	옷복	옷복	옷복
裘	갓옷구	갓옷구	갓옷구	갓옷구	갖옷구
衫	격삼삼	홑옷삼	격삼삼	적삼삼	적삼삼, 옷삼, 한삼삼
裳	츄마샹 男服	치마샹	치마상	치마상	치마상
裙	츄마군 女服 俗呼-兒	치마군	君 巾 치마군	君 巾 치마군	치마군
褌	고의군 短者犢鼻-잠방이 一名窮袴	褌듕의곤	×	×	속옷곤
袴	고의고	바디고	바지고	바지고	바지고
襖	옷오俗總稱男女服:曰-子	핫옷오	두루막이오	두루막이오	윗옷오
襦	×	댜른핟옷유	저고리유	저고리유	저고리유
袈	가사가	×	×	×	가사가
裟	가샷사 袈-僧家法服	×	×	×	가사사
綿	핟옷견新綿	×	×	×	핫옷견
袂	겹옷협-衣	×	×	×	겹옷겹
袷	×	×	겹옷합	겹옷겹	겹옷겹
褝	호읫옷단 - 衣	×	×	×	홑옷단
甲	갑갑	갑갑	×	×	갑옷갑
鎧	갑개	×	갑옷기	갑옷개	갑옷개
緑	×	×	상복최	상옥최	상복이름최
蓑	×	×	되롱이사	뉘역사	도롱이사

'幅'은 '힝뎐, 뵈너븨, 옷폭, 폭'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音에 있어서는 '복'과 '폭'이 같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명칭으로는 겹옷(袂, 袷), 오읫옷(褝), ᄉᆞ매[소매](袪, 袂, 袂, 袖), 깃바대(衤毛)), 고의ᄆᆡᆫ, 듕의(襠), 주름(襉, 襞, 積),ᄀᆞᄐᆞᆺ(신골)(楦), 옷깃(頷, 襟, 襟, 衿, 裾), 기슴(衽), 옷 뒤(裾), 옷섭(衿), 혼솔(縫), 옷솔(縫), 옷단(緣), 옷선(緣), 옷기슴, 뒤ㅅ자락(幅), 힝뎐, 뵈너븨, 옷폭, 폭(幅)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소매, 주름, 옷깃을 표현하는 한자가 많았는데, ≪훈≫에서 보면 동일한 의미의 한자들은 세부적으로는 구별되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머리모양 · 장신구 · 생활용품 명칭의 비교 고찰

머리모양, 장신구에 관련한 한자는 <표 8>과 같으며, 이중에 세 개의 책에 모두 기록된 한자는 '珥', '纓', '紳', '帶', '笏', '衾'이었다.

'珥'는 '귀엿골[45], 귀마개[46], 귀여골, 귀고리'로 각각의 책에 기록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현재는 '귀걸이'를 의미하는 표기로 의미는 같으나 표기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纓'은 쓰개의 끈으로 '곳갈긴 영'에서 '관끈 영'으로 표기가 달라지는데, 쓰개류에서와 같이 '곳갈→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갓끈 영'으로 풀이된다.

'紳'과 '帶'는 '띄'라 하여 그 의미는 같지만, ≪훈≫에 註解된 것을 보면 '紳'은 공복용으로 '帶'와는 그 쓰임새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笏'은 어휘형태나 의미에 있어 변화가 없었으며, 생활용품에서는 이불을 의미하는 '衾'이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공통된 한자 외에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명칭을 살펴보면, '비녀'를 지칭하는 '簪'과 '笄'는 ≪훈≫에서

<표 7> 의복 부위의 명칭 비교

袪	ᄉᆞ매거	×	×	×	소매거
袂	ᄉᆞ매몌	×	×	×	소매몌
袲	ᄉᆞ매익	×	×	×	소매액
袖	ᄉᆞ매슈	×	ᄉᆞ미수	소매수	소매수
衤毛	깃바대탁 俗呼--肩	×	×	×	옷깃벌릴탁
襠	고의믿당俗呼褲襠	듕의당	×	×	바지가랑이당
襉	주름간裙	×	×	×	치마주름간
襞	주름벽 細者曰細褶	×	×	×	옷주름벽
襫	주름젹 裙曰板褶	×	×	×	옷주름적
楦	ᄀᆞᄆᆞ훤 俗呼-頭	×	×	×	골훤
領	옷깃령又목령又管- 統-	×	×	×	옥깃령
襝	옷깃극	×	×	×	옷깃극
襟	옷깃금又기슴금俗呼底-안ㅅ기슴	×	×	×	옷깃금, 앞섶금
衽	기슴임又衣領	×	×	×	옷깃임, 앞섶임, 소매임
裾	×	×	옷깃거	옷뒤거	길거
衿	×	×	옷깃금	옷섭금	옷깃금
縫	×	×	혼솔봉	옷솔봉	솔기봉
緣	×	×	옷단연	옷선연	가선연
裔	×	×	옷기슴예	뒤ㅅ자락예	가선예(옷단)
幅	×	힝뎐복/뵈너븨복	옷폭폭	폭복	폭폭

보면 '簪'은 예복용으로, '笄'는 여자용으로 설명하고 있어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鏡', '釵'는 모두 '동곳'을 의미하는데, '鏡'는 대가 하나인 것을, '釵'는 대가 두 개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釵'는 ≪아≫에서는 '빈혀', '가랑빈혀'라고 해석되고, 현재에도 '비녀'라고 해석되어 있어 의미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훈≫제작당시 '釵'의 의미인 '동곳'은 지금의 '남자 상투에 꽂는 물건[47]'의미 보다 는 머리에 꽂는 물건의 하나로 좀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머리모양에 관한 단어로는 '髮', '髢'가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달외'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髢'는 '낭ᄌᆞ', '첩지'로도 기록되어 단순히 머리만이 아니라 머리를 꾸미는 물건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 '佩'는 '노리개, 찰, 패옥'으로 해석되는데, 현재에는 '찰, 패옥'으로만 해석되고 '노리개'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데, ≪훈≫제작당시 '노리개'는 다른 한자 학습서에 기록된 '찰, 패옥'의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해석인 '여자의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따위에다는 패물의 한 가지[48]' 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명칭을 중심으로 나열하면 빈혀(簪, 笄), 동곳(鏡, 釵), 귀엿골회(珥, 璫), 풀쇠(釧), 골화(環), 연지(赤因, 赤支, 臙, 脂), 돌외(髮, 髢), 첩지(髢), 샹투(髻), 곳갈긴·관끈(纓), 귀마개·귀고리(珥), 귀마개(璫), 폐슬(芾), 인긴(組), 패옥(璜), 기ᄅᆞ마(鞍), 쟈ᄅᆞ(袋), ᄂᆞ모(囊), 칼카풀(鞘), 채(鞭), ᄭᅮ밀(飾), 씌(紳, 帶), 큰씌(紳), 홀(笏), 노리개(佩), 슈건(帕, 帨), 니블(衾, 被), 훗이불(褥), 벼개(枕), 요(褥), 찢(袴), 바탕(鞓), 수(繡), 수ᄃᆞᆯ마기·골홈(紐), 암ᄃᆞᆯ마기(糸口), 눕더기(衲), 보로기(褓, 褓, 棚), 깃(褌), 행전(縢), 폐슬(韠, 佩), 신끈 (綦), 가랑빈혀(釵), 거울(鏡), 족집게(鑷), 어레빗(梳), 빗치개(篦), 바늘(鍼), 실(線), 아교(膠), 풀(糊), 분(粉), 청대(黛)로 분류되는데, 책마다 머리모양, 장신구,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는 한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다른 항에 비해 세 책에 모두 기록된 동일 단어가 많지 않음이 확인된다.

<표 8> 머리모양·장신구·생활용품의 명칭 비교

	[illegible]	[illegible]	아학편 -강경훈본(1813)	아학편 -지석영본(1908)	大漢韓辭典 (2004)
簪	빈혀즘 禮服用漢俗音잔-	빈혀즘	×	×	잠잠
笄	빈혀계 女用	×	빈혀계	빈혀계	잠계
鍐	동곳비單服者	×	×	×	비녀비
釵	동곳차雙服者	×	빈혀ᄎ	가랑빈혀 차	비녀차
珥	귀엿골회사	귀마개이	귀여골이	귀고리이	귀걸이이
璫	귀엿골회당俗呼耳墜兒又呼耳環	귀마개당	×	×	구슬귀걸이당
釧	풀쇠쳔呼臂- 又曰環-	풀쇠쳔	×	×	팔찌천
環	골화환 圓成無端者俗呼指가락지又曰戒指兒	×	×	×	둥근옥환,고리환
指	기름지	×	기름지	연지지	기름지, 연지지
赤因	연지연	×	×	×	연지연
赤支	연짓지 亦作胭脂	×	×	×	연지지
臙		×	연지연	연지연	연지연
膏	곱고	×	×	×	살찔고, 기름고
髮	돌외피俗呼頭-	×	×	×	다리피
髢	달외톄 亦作鬄	×	낭ᄌ체	첩지체	다리체
髻	샹투계又女冠曰髽-	×	상토계	상토계	묶은머리계
鬟	머리환 女屈髮爲髻又Y-져믄간나히又曰Y頭	×	×	×	쪽환
纓	긴영又쑤리曰-兒솟동曰-几以絳毛爲兵飾者皆曰-	곳갈긴영	관끈영	관끈영	갓끈영
芾	×	폐슬블	×	×	폐슬불
印	×	인인	×	×	도장인
組	×	인긴조	×	×	끈조
璜	×	패옥황	×	×	패옥이름황
鞍	×	기ᄅ마안	×	×	안장안
轡	×	혁비	×	×	고삐비
袋	×	쟈ᄅ딕	×	×	자루대
囊	×	ᄂ모낭	×	×	주머니낭
鞘	×	칼카풀쵸	×	×	칼집초
鞭	×	채편	×	채	채찍편
飾	×	쑤밀식	×	×	꾸밀식

帶	씌ᄃᆡ又골혼及간흘皆曰-子	씌ᄃᆡ	씌ᄃᆡ	씌대	띠대
紳	씌신公服用	큰씌신	큰띠신	큰씌신	큰띠신
絰	×	×	노씌질	삼씌질	삼띠질
笏	홀홀俗稱手簡牙者曰牙-	홀홀	홀홀	홀홀	홀홀
佩	노리개패亦作珮	×	찰픠	패옥패	패옥패, 찰패
糸條	세툿툐俗呼-兒細-曰呂公-總稱繫腰	×	×	×	끈목도
帕	슈건파 云首飾卽 幮頭也	×	×	×	수건파
帨	슈건셰	×	슈건세	찰수건세	수건세
衾	니블금	니블금	이불금	이불금	이불금
被	니블피 單被曰 臣卜單	×	×	×	이불피
褥	×	×	홋이불쥬	홋이불주	홑이불주
枕	×	벼개침	벼기침	벼개침	베개침
褥	×	×	오욕	요 욕	요욕
銙	씻과俗呼板兒	×	×	×	대구과
鞓	바탕뎡俗呼帶-亦作革廷	×	×	×	가죽띠정
縩	수ᄉᆞ슈俗呼-兒	×	×	×	끈수
紐	수ᄃᆞᆯ마기뉴俗呼-子又糸也	골홈류	×	×	매듭뉴
糸口	암ᄃᆞᆯ마기구俗呼-兒	×	×	×	×
緌	긴슈冠纓結餘下垂	×	×	×	갓끈유
衲	눕더기僧呼-襖	×	×	×	장삼납
襁	보로기강	×	×	×	띠강
褓	보로기보	×	×	×	포대기보
褯	깃쟈俗呼-子	×	×	×	포대기자
棚	보로기붕俗呼-子	×	×	×	시렁붕(선반)
縢	×	×	힝젼등	행전등	행전등
韠	×	×	폐슬필	폐슬필	폐슬필
綦	×	×	신끈긔	신끈긔	들메끈기
鏡	×	거우로경	거울경	거울경	거울경
鑷	×	×	족지기셥	족집게셥	쪽집개섭
梳	×	빗소	빗소	어레빗소	빗소
篦	×	×	참빗비	빗치개비	참빗비

6. 의복 재료 및 직물 명칭의 비교고찰

직물에 나타난 한자는 <표 9>와 같으며, 이중 '紗', '羅', '綾', '布', '帛', '錦'이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紗'는 '사'에서 '깁'으로, '羅'는 '노'에서 '깁'으로 기록되는데, 즉 ≪아≫에는 이전 기록에는 각기 다르게 지칭하던 명칭들이 모두 '깁'으로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유사한 경우로 '綾'은 '고로'에서 '깁'·'비단'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로'라는 말은 1800

<표 9> 의복재료 및 직물의 명칭 비교

	훈몽자회	신증류합	아학편 -강경훈본(1813)	아학편 -지석영본(1908)	大漢韓辭典 (2004)
紗	샷사	사사	사사	깁사	깁사
羅	놋라又列也又網也	로라/ 벌라	깁나	깁라	비단라
綾	고로릉 俗呼-子	고로릉	깁릉	비단릉	비단릉
段	비닫단俗呼紵紗又體-片	×	×	×	비단단
縑	깁겸俗呼p絲布	×	×	×	합사명주견
紵	모시뵈시俗呼苧麻布又曰木絲布	×	×	×	명주시
布	뵈포-子又曰夏	뵈포	뵈 포	뵈포	베포
帛	비단빅	깁빅	비단빅	비단백	비단백
毳	무즈모俗呼-子	×	×	×	무늬있는모직물모
氈	무즈갈	×	×	×	모직물할
毛 氈	시욱젼俗呼-條又曰條子	시욱젼	×	×	모전전
毯	담담俗呼화-又曰-子	×	×	×	털담요담
緞	굴근깁뎨	×	×	×	비단제
繒	ᄀᆞᄂᆞᆫ깁증	×	×	×	비단증
絺	ᄀᆞᄂᆞᆫ뵈티葛布細曰-粗曰綌	×	×	×	갈포치
綌	굴근뵈격	×	×	×	갈포격
紈	깁환細而白者又素也	×	×	×	흰비단환
綺	깁긔有紋者又細綾也	×	×	×	비단기
綃	깁초	깁쵸	×	×	생초초
絹	깁견	깁견	×	×	명주견
錦	긊금俗呼紋-	금금	비단금	비단금	비단금
紬	명디듀	면듀듀	×	×	명주주
縐	무뤼추俗呼-紗	×	×	×	가는갈포추
縠	무뤼곡	×	저ᄉᆞ곡	저사곡	비단곡
縗	×	슈슈	수노을수	수노을수	자수수
苧	×	모시져	×	×	모시저
麻	×	삼마	×	×	삼마
皮	×	가족피	×	×	가죽피
革	×	니근갓혁	×	×	가죽혁
縷	뵛오리루布-又絨糸麦 아니뷘니근실	×	×	×	실루
纑	뵛오리로	×	×	×	삼실로
緜	눌근소옴은舊絮爲-	×	×	×	솜온
纊	소옴광	×	×	×	솜광
絮	소옴셔又柳花亦曰柳-	×	×	×	솜서
緜	소옴면俗呼-花去其子者曰花絨	綿소옴면	×	×	綿솜면
繭	고티견俗呼蚕-	×	×	×	고치견

년대 이후에는 '깁'이나 '비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帛'은 '비단'에서 '깁'으로 다시 '비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錦'은 '금'에서 '비단'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글을 한자로 번역한 ≪국한회어≫[49]에서 보면, '깁'을 '紈'으로, '깁비단'을 '紈帛'으로 표기하고 있어 '깁'은 다양한 한자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깁'과 '비단'이 특정한 조직의 직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견으로 된 직물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단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깁'은 ≪계림유사≫에 '絹曰及'이라 기록되어 있어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단어였음 알 수 있다.[50]

'布'는 '뵈'로 의미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계림유사≫에 '布曰背'라 기록되어 있어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51] '紬'는 '명디'에서 '면듀'로 어휘표기가 달라졌으며, '縠'은 곱고 가는 천을 뜻하는 '무뤼'에서 '저ᄉᆞ[저사]'로 그 표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한글명칭으로 나열해 보면 사(紗), 노(羅), 고로(綾), 비단(段, 帛, 錦), 모시(紵, 苧), 깁(紗, 羅, 縑, 帛, 紈, 綺, 綃, 絹), 무ᄌᆞ[52](褧, 縐), 무뤼(縐, 縠), 마(麻), 가죽(皮), 니근갓(革), 빗오리(縷, 纑), 놀근소옴(縐), 소옴(纊, 絮, 緜, 綿), 고티(繭)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직물에서는 '깁'과 '비단'이, 재료에서는 '소옴[솜]'이 다양한 한자 표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색 명칭의 비교고찰

색 명칭으로 기록된 한자는 <표 10>과 같으며, ≪훈≫에 기록된 색은 안료 및 안료가 가지고 있는 색을 표기한 것이다. 다. 이중 '白', '靑', '黑', '玄', '赤', '朱', '紅', '黃', '紫', '綠', '碧'이 공통으로 기록된 색명이다.

세 책에 모두 기록된 색 명칭은 '白, 靑, 黑, 赤, 黃'의 오방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미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외 '玄, 朱, 紅' 또한 공통된 색 명칭으로 의미에 변화가 없었으나, '黑'과 색감이 유사한 '玄'은 ≪주해천자문≫[53]에 '적색이 도는 검은색(黑而有赤色)'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黑'과는 구별되는 색명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紫'는 'ᄌᆞ디, 블글, 검붉을'로 색을 표현하는 어휘가 조금씩 달랐는데, ≪주해천자문≫[54]에는 '黑赤間色靑赤'이라 하여 설명하고 있어 'ᄌᆞ디' 나 '검붉을'의 의미가 좀더 명확한 '紫'의 색 표현임을 알 수 있다. '綠'은 '프를→ᄑᆞ롤→초록'으로, '碧'은 'ᄑᆞ롤→프를'로 변하는 색감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외 '紺'은 '아청→보라'로 기록되었고, 현재는 '감색'으로 해석되는데, 아청은 '검은 빛을 띤 푸른 빛[55]'으로 붉은 색이 가미된 '보라'나 '감색'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 시대에 따라 색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색상명을 한글명칭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힐(素), 힌(白), 분(粉), 푸를(靑, 綠, 碧, 蒼, 翠), 검을(黑, 玄, 皂), 블글(丹, 纁, 彤, 赭, 赬, 赤, 朱, 緋, 紅, 絳, 紫), 누를(黃), 보라· 아청(紺), 자주(紫)로 기록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계열 순으로 한자 어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글에 대한 다양한 한자표기는 ≪아≫에서 보면 그 수가 적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 흰빛을 나타내는 '素'는 '白'과는 달리 직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색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명주'[56]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흰비단[57]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이상 한자학습서에 나타난 색을 살펴 본 결과 아동의 학습서라는 특성상 오방색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색상만이 기록되어 있어, 실제 복식에 사용된 다채로운 색명을 확인 할 수는 없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식명칭을 고찰하는 첫 단계로 조선시대 아동의 한자 학습서이며 발행연대가 다른 ≪훈몽자회≫, ≪신증류합≫, ≪아학편≫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시대에 따른 용어 해석의 차이 및 의미의 확대·축소 등 해석 범위의 차이, 어휘형태의 변화상을 연구하고자하였다.

먼저 한자 학습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본 고에서 채택한 한자학습서들은 편찬자에 따라 채택한 한자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쓰

<표 10> 색 명칭의 비교

[illegible]	신증류합	아학편 -장경본(1813)	아학편 -지석영본(1908)	大漢韓辭典 (2004)
堊	흰흙악	×	×	흰흙악
素	흴소 又 情-雅-行-食糸東 -	×	흴쇼	흴소	흴소, 흰비단소
粉	붓분又米細爲-	×	분분	분분	가루분, 흴분
白	흰빅又告也	흰빅	흰빅	흰백	흰빛백
黑展	청듸뎐 大藍作之所以染青亦作靛通作澱	×	×	×	남색염료전
靑	프를청	프를청	푸를청	푸를청	푸를청
黛	청딧듸以螺蛤爲之書眉用	×	청대대	청대대	눈썹그리는먹대,검푸를대(靑黑色)
黑	거믈흑	거믈흑	거믈흑	검을흑	검을흑
玄	가몰현	가몰현	거믈현	검을현	검을현
皂	거믈조又馬槽又-斗柞實又-隷	×	×	×	검을조
丹	블글단	×	불글단	붉을단	붉은색단
臒	블글확	×	×	×	안료악(赤石脂)
彤	블글동	×	×	×	붉을동
赭	블글쟈	×	×	×	붉은안료자
赬	블글뎡	×	×	×	붉을정
赤	블글젹	블글젹	불글젹	붉을적	붉을적
朱	블글쥬	블글쥬	불글쥬	붉을주	붉을주
緋	블글비	×	×	×	붉은색비
紅	블글홍	블글홍	불글홍	붉을홍	주홍색홍
絳	블글강	×	×	×	진홍강
黃	누를황	누를황	누루황	누를황	누를황
紫	즈믿즈	즈디즈	불글즈	검붉을자	자줏빛자
綠	프를록	프를록	푸를녹	초록록	푸를록
碧	프를벽	프를벽	푸를벽	푸를벽	푸를벽
紺	×	×	아청감	보라감	감색감(深青揚赤色)
蒼	×	×	푸를창	푸를창	청색창
翠	×	프를취	푸를취	푸를취	비취빛취
色	×	빗식	빗식	빗색	빛색

개, 신, 의복, 의복의 부위명칭, 수식, 두식 및 생활용품, 직물, 색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한자의 의미는 제작된 연대가 내려올 수 록 단순화·단일화되고, 구체적인 복식명칭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편찬자의 의도 때문인 것으로 ≪아학편≫은 '아동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학습서'를 제작의도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학습서에 비해 복식명칭이 구체화되고 단순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복식명칭을 현재의 의미까지 포괄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석이 변화되는 한자(*冠 : 곳갈→관→갓/ 袍 : 관대옷→도포→핫옷, 군복포, 내의포, 두루마기포, 잠방이포/ 襖 : 옷→핫옷→두루마기→윗옷/ 釵 : 동곳→빈혀→가랑빈혀→비녀/ 鏡 : 동곳→비녀/ 帛 :비단→ 깁→비단/ 紗 : 사→깁/ 羅 : 놋→로→깁→비단/ 綾 : 고로→깁→ 비단/ 錦 : 금→비단/ 縠 : 무뤼→저사동곳 →비단/ 紺 : 아청→보*

*라→감색)*가 있었고, 의미가 확대되는 한자(*襦 : 다른 핟옷→저고리/ 綾 : 고로→깁→비단/ 紗 : 샷→사→깁/ 羅 : 놋→로→깁→비단/ 錦 : 금→비단)*가 있었으며, 시대가 근래로 오면서 포괄하는 의미가 줄어들거나 혹은 새로운 한자로 분화되면서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자 (*帽 : 갇모, 감토, 사모→감토 ,사모→사모/ 巾 : 곳갈, 수건 →수건→두건, 수건/ 襖 : 옷→핫옷→두루마기→윗옷)*가 있었다.

이외 의미는 같되 표현이 다르게 변화된 한자(*靴 : 훠→목화/ 屐 : 격지→나무/ 衫 : 젹삼→ 홋옷→적삼/ 袴 : 고의→바디→바지/ 珥 : 귀엿골→귀마개→귀여골→귀고리)*가 있었고, 한글명칭은 같으나 쓰임새에 따라 한자어휘의 형태가 두 가지 이상인 복식명칭*(帶·紳, 裳·裙, 簪·笄, 鏡·釵)*이 있었으며, 지금의 해석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한글명칭*(곳갈, 동곳, 노리개)*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각 시대에 따라 한자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과 의미가 변화되는 명칭(冠, 袍, 襖, 釵, 鏡, 帛, 紗, 羅, 綾, 錦, 穀, 紺)이 있음을 알았고, 언해가 변화되는 한자 중에는 포괄하는 의미의 범위가 축소(帽, 巾, 襖)되거나 확대(襦, 綾, 紗, 羅, 錦)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미는 동일하나 어휘형태가 변화된 명칭(靴, 屐, 衫, 袴, 珥)이 있었고, 표기는 동일하나 용도에 따라 한자가 다른 명칭이 있었으며, 과거와 현재에 사용되는 한글명칭 중에 해석범위에 차이가 있는 명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자료를 해석할 때 시대에 맞는 해석과 그에 따른 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대의 복식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황유선 (1999).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8-101.
2) 이은주 (2001). 17세기 전기 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복식, 51(8), pp. 25-41.
3) 장인우 (2002). 조선중기 의생활 어휘에 대하여 -순천김씨묘 언문간찰을 중심으로-. 복식, 52(3), pp. 1-13.
4) 서정원 (2003).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 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5-98.
5) 김희진 (1988). **訓蒙字會의 語彙的 硏究: 字訓의 共時的 記述과 國語史的 變遷을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48, p. 291.
6) 이양순 (2001). ≪순천김씨묘간찰≫에 나타나는 복식 관련어 연구. 반교어문학회지, 14, pp. 125-151.
7) 오완규 (2001). 천자문·훈몽자회·신증유합 자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81.
8) 이가원, 안병주 감수 (2004). **大漢韓辭典**. 교학사.
9) 이후에는 ≪훈≫이라 기록한다.
10) **한국고전총서:훈몽자회** (1973). 서울: 大提閣.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694.
12) **동양학총서;신증유합** (1972).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13) 이후에는 ≪신≫이라 기록한다.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앞의 책, 권14, p. 14.
15) 이후에는 ≪아≫라고 기록한다.
16) 정재영 (2002). **茶山 정약용의 ≪兒學編≫**. 태학사, p. 11.
17) 정재영 (2002). 위의 책, pp. 161~242, 영인본 참조.
18) 정약용 著, 池錫永 注釋 (1908). **兒學編**. 廣學書鋪.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앞의 책, 권14, p. 376.
20) 韓石峰 著, 이기문 간행 (1972). **原本)石峰千字文**. 서울: 駱山書院. 국립중앙도서관소장.
21) 崔世和 著 (1993). **漢字 敎本 三書 硏究(千字文;丙子本 影印本 수록)**. 서울: 太學社.
22) **註解千字文** (1804). **周興嗣 原著; 洪泰運 書**. 京城: 廣通坊. 국립중앙도서관소장.
23) 이가원, 안병주 감수 (2004). 앞의 책, p. 328, 쓰개의 총칭.
24) 이여성. **조선복식고**. 백양당, pp. 189-191.
弁에 대한 국어 곳갈+고깔의 어원적 해석도 『곳』즉, 尖角, 돌출부라는 語와 『갈』즉 冠帽라는 語가 조합된 명사일 것이므로 이것은 정상이 뾰족한 冠帽라는 意로서 중국에 있어서의 변의 형상에 대한 개념과 대략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있어서는 『곳갈』이 現今까지 농민과 승려사이에 전하여지고 있으나 현재의 그것도 三角狀의 그 원형만은 완전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25)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상)**. 두산동아, p. 411, p. 501.
26) 張混 輯. **蒙喩篇**. 국립중앙도서관소장.
27) **四禮便覽**. 卷之一, 冠禮, 陳冠服, 帽子(丘氏) 曰今世帽子有貳等 所謂大帽者 乃是笠子 以蔽雨日 所謂小帽者或紗或羅或緞爲之 小帽卽今(감頭).
28) 역어유해 (1974). **아세아문화사**, p.87 小帽子○ 감투.

29) 國漢會語 (1986). 한국어학자료총서 第一輯. 태학사. p. 124.
30) 남광우 (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p. 78.
31) 위의 책. p. 128. 冠帶+옷.
32) 이가원, 안병주 감수 (2004). 앞의 책. p. 2950.
33) 의인왕후 빈전혼전도감·인목왕후 빈전혼전도감. 규장각소장.
34) 장인우 (2002). 앞의 글. 복식. 52(3). p. 6.
35) 朝鮮史料叢刊. 第八. 眉巖日記草 一. p. 16.
36) 앞의 책. 眉巖日記草 五. p. 105.
37) 國朝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禮服制度.
38) 김민수 等著 (1992).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p. 244. 袴衣: 남자의 홑바지. 單袴. 中衣.
39) 國漢會語 (1986). 앞의 책. p. 287.
40) 김민수 等著 (1992). 앞의 책. p. 816. 다르다〈형용사〉.
41) 고문서집성(12)-장서각편Ⅲ-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23. p. 119.
42) 譯語類解 (1974). p. 309.
43) 앞의 책. 眉巖日記草 一. p. 16.
44) 이기문 감수 (1990).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p. 205.
45) 이희승 편저 (200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 472. 귀엿골〈옛〉 귀고리.
46)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상). 두산동아. p. 760. 귀마개〈옛〉 귀막이. 귀고리.
47) 이기문 감수 (1990). 앞의 책. p. 645.
48) 위의 책. p. 481.
49) 國漢會語 (1986). 앞의 책. p. 149.
50) 안병호 (1985). 계림유사와 고려시기조선어. 민족문화사. p. 261.
51) 위의 책. p. 261.
52) 남광우 (1997). 앞의 책. p. 587. 털로 짠 직물.
53) 주해천자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54) 주해천자문. 국립중앙도서관소장.
55) 이기문 감수 (1990). 앞의 책. p. 1537.
56) 태종실록. 17년12월 경술(庚戌).
57) 이가원, 안병주 감수 (2004). 앞의 책. p. 2454.